

##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통일의학센터의 2020년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 교육 사업

신희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통일의학센터 소장)  
최민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교실 교수, 통일의학센터 부소장)  
전지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최소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

### < 목 차 >

#### I. 통일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 사업

1. 사업 소개
2. 제16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3. 제17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4.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 II. 교육 사업 만족도평가 분석

1. 2020 통보리 아카데미 정량평가: 일반사항, 강좌 만족도 등
2. 2020 통보리 아카데미 정성평가: 장단점, 논의 등
3. 추후 강의 주제

#### III. 통일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

1. 사업 성과
2. 사업 평가

## I. 통일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 사업

### 1. 사업 소개

#### 1) 사업 배경

2014년부터 이어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및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는 2020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통일 보건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 사업명으로 예산을 받아 진행되었다. 통일의료 분야는 세계 정세와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며, 통일의학센터는 지속적으로 해당 교육 사업을 수행하며 명실상부한 통일 보건의료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 2) 사업 목적

통일의학센터는 통일 보건의료 분야를 연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통일 보건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을 통해 관련 분야를 넘어선 전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2015년부터 실행한 통일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축적한 통일의학센터의 연구 성과 및 콘텐츠 체계화를 통해 일반 대중,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학계, 민간단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지식 교류와 네트워크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 3) 사업 추진 일정

사 업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일 기반 구축 사업	1.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2.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3. 서울대학교 의학과 통일의학연구										

2020년 통일의학센터의 통일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 사업은 총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연 2회),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연 1회, 2주), 서울대학교 의학과 의학연구 내 통일의학연구 개설(연 1회, 여름학기 3주)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 강좌 사업인 열린강좌와 아카데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제16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 1) 강좌 목표

남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국제기구의 건강 지표, 질병 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및 통일의료에 관심을 지닌 일반 대중과 대학(원)생,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다룰 수 있는 분야인 보건의료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글로벌한 시각으로 북한 보건의료 현실과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정책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 2) 강좌 개요

- 교육 대상: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일반 대중과 실무자 및 연구자
- 교육 일시: 2020년 7월 16일 (목) 15:00~17:00
- 교육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촬영스튜디오
- 교육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보건의료, 어디에 서 있는가?
- 교육 평가: 교육생 강좌 만족도평가 (객관식/주관식)
-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운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3) 강좌 주요 특징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를 쉽게 홍보하기 위해 축약하여 ‘통통統通 열린강좌’로 명명하고 이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과 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하였다.

제16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는 북한 보건의료와 경제 분야 전문가 2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진행한 후, 자유로운 오픈 토론이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 4) 강좌 세부 프로그램

강 의 명	강 사 진
COVID-19로 인한 북한 경제 영향과 보건의료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북한 COVID-19 동향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전망	손광수 책임연구위원 (KB경영연구소 북한연구센터)

## 5) 강좌 결과

### (1) 제16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장점

다음의 표는 제16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의 어떤 측면이 가장 도움 되었습니까?’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4.3%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제16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로 강좌 등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고명현 박사님의 경제 영향과 대북제재 내용이 정말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연자분들 섭외하시고 멋진 강의 준비해주신 센터 연구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li> <li>- 주제가 참 좋았습니다.</li> <li>- 남북 협력 연구 관련한 부분이 도움되었습니다.</li> <li>- 강의 컨텐츠, 교육자료 등이 좋았고, 다른 분야 전문가를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북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방식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들도 유용했습니다.</li> <li>- 실제 북한 보건의료 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li> <li>-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보건의료 산업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li> <li>- 보건과 경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li> <li>- 최근 코로나의 상황이 북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루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li> <li>- 북한에 대한 최신 지견을 얻을 수 있었네요.</li> </ul>

### (2) 제16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단점

다음의 표는 제16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 또는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57.1%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제16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브 방송에서 화면이 작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li> <li>- 질 좋은 녹화 장비의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장비 사용기술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발표자가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PPT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li> <li>-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의 나눔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듯 합니다.</li> </ul>

<b>열린강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의 포커스가 정확히 맞춰지지 않았습니다.</li> <li>- 첫 번째 강사님의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서 집중이 어려웠습니다.</li> <li>- 여건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다음 교육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li> <li>- PPT 슬라이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사가 보일 수 있도록 배려하면 더욱 좋겠습니다.</li> </ul>
-------------	--

### (3) 제16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추후 기획

다음의 표는 제16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추후 수강을 원하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35.7%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b>제16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겠지만 전염병 혹은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은 어떻게 있나요?</li> <li>- 금번처럼 북한 지원 단체와 기관 외 타 분야에서 바라본 북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li> <li>- 좋은 강의 준비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li> <li>-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및 의료이용 행태 등 국내 적응 상황이 궁금합니다.</li> <li>- 손광수 박사님의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li> </ul>

### (4) 제16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총평

제16회 열린강좌는 COVID-19 상황에서 이뤄진 첫 온라인 강좌였는데, 전문 촬영 장비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열린강좌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강의 콘텐츠에 있어, 현 상황에서의 북한 보건의료 현실과 대북 제재 및 UN 제재에 대한 특수한 콘텐츠를 다뤘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으며, 해당 강좌에서의 부족한 촬영 기술 부분은 전문 촬영 업체 섭외를 진행함으로써 추후 강좌에서 보완되었다.

오프라인 수강자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7월 중 통일의학센터에서 3주간 의학연구를 진행하였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3인의 현장 참여로 열린강좌를 함께 꾸렸다. 사전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강의안을 미리 공유하고 각 강사에 대한 질문을 사전 접수하여 질의응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한 만큼 수강자들이 질문창에 남긴 질문들은 현장에서 강좌를 진행하는 연구원이

수집하여 강사진에게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강좌로 만들었다.

(5) 제16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사진



열린강좌 현장



고명현 박사님 강의

3. 제17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1) 강좌 목표

최신 북한 현황 파악 중 2020년 10월 평양종합병원 건립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기에 해당 이슈와 연계된 건축 전문가와 수차례 평양을 다녀온 기자를 초청하여 정치적 이념을 떠나 다룰 수 있는 분야인 보건의료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글로벌한 시각으로 북한 보건의료 현실과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정책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2) 강좌 개요

- 교육 대상: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에 관심있는 일반 대중과 실무자 및 연구자
- 교육 일시: 2020년 9월 24일 (목) 15:00~17:00
- 교육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촬영스튜디오
- 교육 주제: 평양종합병원 건립을 통해 보는 북한 의료기관 타임머신
- 교육 평가: 교육생 강좌 만족도평가 (객관식/주관식)
-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운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3) 강좌 주요 특징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를 쉽게 홍보하기 위해 축약하여 ‘통통統通 열린강좌’로 명명하고 이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과 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하였다.

제17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는 북한 건축 및 방송 분야 전문가 2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라이브 방송으로 강의를 진행한 후, 자유로운 오픈 토론이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 4) 강좌 세부 프로그램

강 의 명	강 사 진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북한, 그리고 병원	김현경 소장 (MBC 통일방송연구소)
건축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북한, 그리고 병원	차상욱 대표 (이프건축사사무소)

### 5) 강좌 결과

#### (1) 제17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장점

다음의 표는 제17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의 어떤 측면이 가장 도움 되었습니까?’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2.5%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 좌 명	수 강 자 의 견
제17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질병과 사망 원인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li> <li>- 북한의 의료 환경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li> <li>- 평양 시내의 병원 사진을 실사로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li> <li>- 넓은 식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어요.</li> <li>- 언론 및 건축 등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북한의 의료 현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li> <li>- 보건의료 측면에서만 북한 보건의료를 보는 것이 아닌, 기자와 건축사의 관점으로 북한의 환경과 병원을 알아 보는 것이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네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li> <li>- 보건의료인이 아닌 타 분야의 전문가 시각에서 본 북한의 이해 측면에서 좋았어요.</li> <li>- 건설 분야에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속도전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가, 기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 의료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li> <li>- 북한의 의료 실태를 직접 겪어본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였습니다.</li> </ul>
--	--

(2) 제17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단점

다음의 표는 제17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 또는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62.5%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제17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팅창 등 실시간 질문 접수가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li> <li>- 부족한 점은 달리 없고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li> <li>- 참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가 미흡했습니다.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li> <li>- 동영상 재생시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강사의 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li> <li>- 실시간 강의의 묘미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피드백에 반응하면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듯 합니다. 진행하는 분들이 채팅의 피드백을 강사에게 적절하게 때마다 전달하여 쌍방 소통이 가능해지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li> <li>- 아직까지 수강자들이 좀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li> <li>-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li> <li>- 지난 온라인 강좌와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중간중간 화면 전환에 대기화면 같은 것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강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li> </ul>

(3) 제17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추후 기획

다음의 표는 제17회 열린강좌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추후 수강을 원하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50.0%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제17회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의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또는 자가격리 실태에 대해 궁금합니다.</li> <li>- 북한 내 재활치료 수준이 궁금하네요.</li> <li>- 북한에서 1차의료를 고려의학 기반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상</li> </ul>



<b>열린강좌</b>	<p>세한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의사와 고려의사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또는 관련 진료 지침이 있는지 등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장애에 대한 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히, 자폐증 등의 증상을 지닌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데 현장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li> <li>- 북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및 복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li> <li>- 금번처럼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본 북한과 북한 보건의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li> <li>-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보건의료 환경 내지는 서비스 경험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li> <li>- 북한 내 전염병 실태는 어떤가요?</li> </ul>
-------------	--

(4) 제17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총평

제17회 열린강좌는 COVID-19 상황에서 이뤄진 두 번째 온라인 강좌였는데, 2020년 첫 강좌에 비해 전문 촬영 업체 섭외 및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나은 강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해당 부분은 수강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의를 이뤄진 장소가 국제관 내 촬영 전문 스튜디오여서 보다 전문성 있는 강의 제공이 가능했다.

질의응답에 있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수강자와 강사진의 쌍방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못해 나타난 의견으로, 차후 강의에서는 강사진에게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여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찾았다.

(5) 제17회 통통統通 열린강좌 사진



김현경 소장님 강의

차상욱 대표님 강의

## 4.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 1) 강좌 목표

타 분야의 학문적 요소를 건강 문제와 융합하여 폭넓은 시각으로 북한 보건의료 및 통일의료 관련 이슈를 공유하여 융복합 인재 육성의 초석을 다지는 강좌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일방향성의 강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룹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세션별 전문가 강의 후 이뤄진 만족도평가 내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강의 후에도 스스로 고민해보는 기회를 만들었다.

### 2) 강좌 개요

- 교육 대상: 통일의료 및 남북한 보건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관련 실무자와 연구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
- 교육 일시: 2020년 11월 26일 ~ 12월 3일 (목) 14:00~17:00
- 교육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촬영스튜디오
- 교육 주제: 슬기로운 북한 연구생활 - 연구방법론을 잇다, 남북 협력방안이 있다
- 교육 평가: 교육생 강좌 만족도평가(객관식/주관식), 교육생 개별 피드백
- 교육 비용: 무료
- 교육 운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교육 특전: 수료 기준 충족 시 통일의학센터 소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수료 인원: 68명
- 수료 기준: 2주에 걸친 강의의 총 6개 세션 중 각 주의 2개 세션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고, 매주 진행된 만족도평가 및 주관식 질문 6개 중 4개 이상 참여 필수

### 3) 강좌 주요 특징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를 쉽게 홍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강좌 브랜드화를 위해 '통보리 아카데미'로 명명하고 이를 주축으로 관련 기관과 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하였다.

통일의학센터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열린강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통일의료 강좌를 구성하고자 보다 전문적인 내용의 아카데미를 구성하였다. 수강자들은 사전 제공된 전문 강사진의 주제별 논문

을 미리 읽고 분석한 후, 전문가 강의 및 만족도평가의 주관식 질문을 통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 4) 강좌 세부 프로그램

2020년 11월 26일 (목)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05	Opening
14:05~15:00	[북한통계] 국제기구 데이터와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 강연자: 양운철 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15:05~16:00	[북한원문] 북한의 의학문헌, 외과 학술지 분석 강연자: 하신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6:05~17:00	[노동신문] 북한 과학기술 및 ICT 분석 강연자: 최현규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0년 12월 3일 (목)	
시 간	프 로 그 램
14:00~14:05	Opening
14:05~15:00	[통일인식] 통일의식조사와 남북의 미래 강연자: 김병로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5:05~16:0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코호트 연구 강연자: 홍진표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6:05~17:00	[접경지역] 북-중으로 보는 남북 접경관리 협력 방안 강연자: 오수대 선임연구원 (중앙대학교 동북아학과)

#### 5) 강좌 결과

##### (1) 2020 통보리 아카데미 총평

2020 통보리 아카데미는 북한 및 통일의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별 주제를 고민하던 중, 북한 보건의로 관련 연구방법론을 다루기를 희망하는 전년도 수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 및 기획하였다. 이번 연도의 아카데미는 2주에 걸쳐 장기 교육으로 기획함에 따라 수강자들에게 심도있는 통일의료 강의 제공이 가능하였다. 추후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관련 분야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융복합 인재 육성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춰, 각 분야 보건의료 관련 혹은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6회)를 진행하고 주차별 만족도평가(2회)를 실행하였다. 온라인 강의 도입을 통해 만족도평가의 주관식 문항으로 수강자 개개인들로 하여금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카데미 수강 후에도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관련 주제에 대해 폭넓은 고찰이 가능한 기회를 만들었다. 2020 통보리 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평가 분석 내용은 다음 III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2) 2020 통보리 아카데미 강의안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

세종연구소 양운철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surgical diseases in North Korean research papers published between 2006 and 2017**

Korea University  
Shin Ha

(세션 1) 북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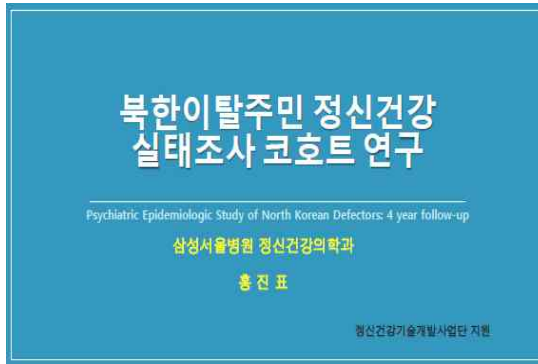


(세션 3) 노동신문

(세션 2) 북한원문



(세션 4) 통일인식



(세션 5) 북한이탈주민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북·중을 통해 보는  
남북 접경 관리 협력방안



2020.12.03  
오수대 / 동북아학박사

(세션 6) 접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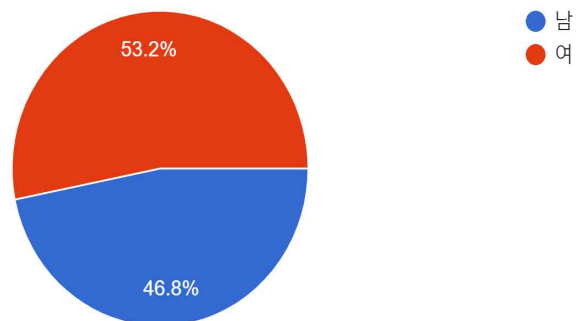
## II. 교육 사업 만족도평가 분석

본 장에서는 위에서 다루었던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강의를 수강하였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 만족도평가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만족도평가는 정량 및 정성 평가로 구성되며 해당 결과를 통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군, 강좌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 가능하다. 아래 결과는 2주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 중 응답자 79명의 수치를 나타낸 1주차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1주차와 2주차 만족도평가 중복 참여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임의로 많은 숫자의 응답자를 보이는 1주차 만족도 평가만을 분석 결과로 보이기 위함이다.

### 1. 2020 통보리 아카데미 정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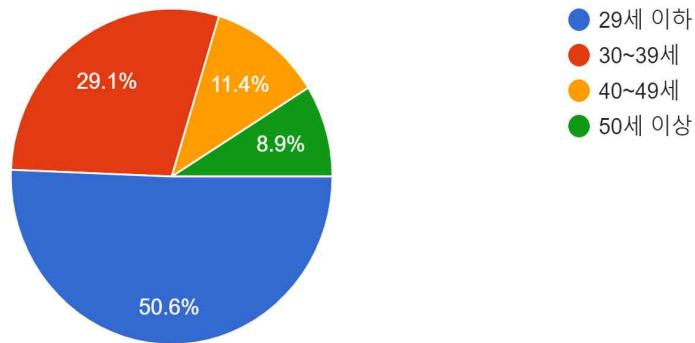
#### 1) 일반사항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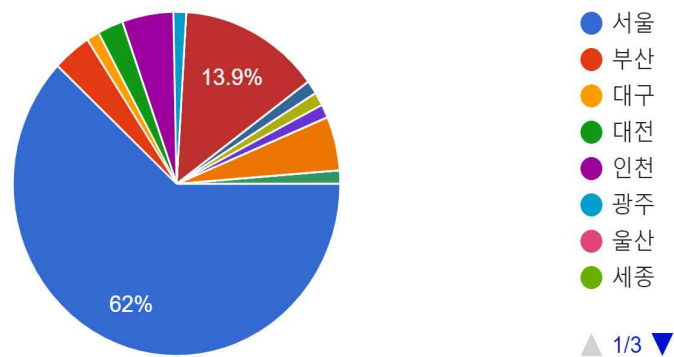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1주차 강의를 수강한 인원 중 남성 37명(46.8%), 여성 42명(53.2%)으로 여성이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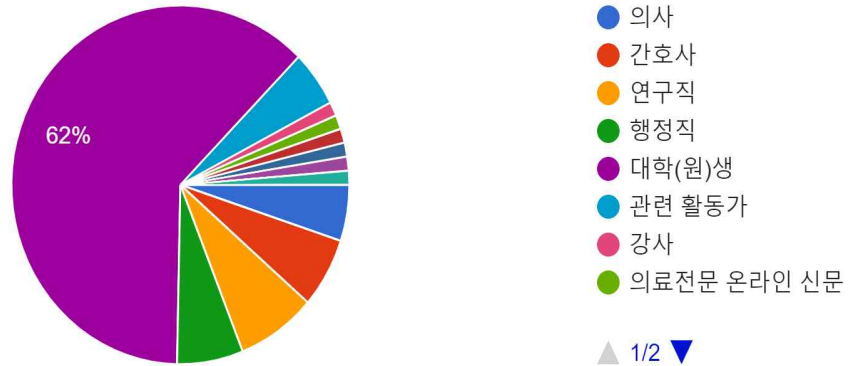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1주차 강의를 수강한 인원 중 연령대 분포는 29세 이하 40명(50.6%), 30대 23명(29.1%), 40대 9명(11.4%), 50대 7명(8.9%)으로 29세 이하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50대 또한 고른 참여도를 보였다.

(3) 지역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1주차 강의를 수강한 인원 중 서울 (49명, 62%), 경기(11명, 13.9%), 경북(4명, 5.1%), 부산(3명, 3.8%)의 순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였으며, 그 외 기타 지역으로는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참여하였는데 이는 1명(1.3%)이었다.

(4) 직군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1주차 강의를 수강한 인원의 직군은 대학(원)생 49명(62%), 연구직 6명(7.6%), 행정직과 간호사 각 5명(각 6.3%), 의사 및 관련 활동가 각 4명(각 5.1%)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군으로는 강사, 의료전문 온라인 신문 기자, 한의사, 회사 및 기관 운영, 지역주민, 대학원 준비생 등이었다.

2) 강좌 만족도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강의 중 정량평가 관련 강좌 만족도 질문은 12개이며 총 4개 부문(강좌 기획, 매체/환경, 교육 성과, 종합 평가)으로 이뤄졌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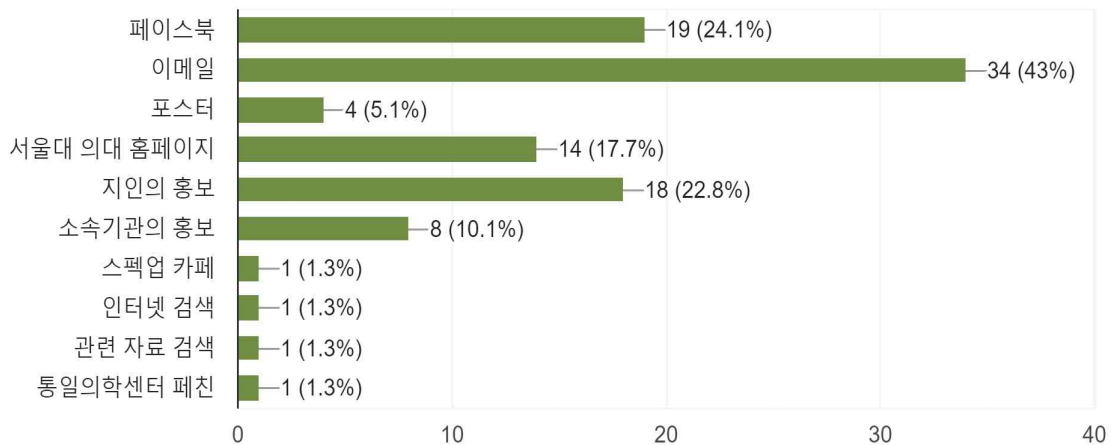
연번	문항
<b>강좌 기획</b>	
1	본 강의는 교육목표달성에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까?
2	본 과정은 해당 통일 보건의료 및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매체/환경</b>	
3	교재 등 교육자료는 강의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b>교육 성과</b>	
5	본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성 또는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	본 과정은 통일 보건의료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b>종합 평가</b>	
7	이번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하십니까?



응답자는 1~5점 척도로 5점(매우 그렇다)부터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선택이 가능했으며 2주에 걸친 아카데미 강좌의 종합 평가 항목은 5점 만점에 4.5점을 모두 넘길 만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설문 응답 인원수는 1주차 79명, 2주차 68명으로 계획안에 작성한 주차별 30명 이상의 참석자 목표를 달성하였다.

### 3) 강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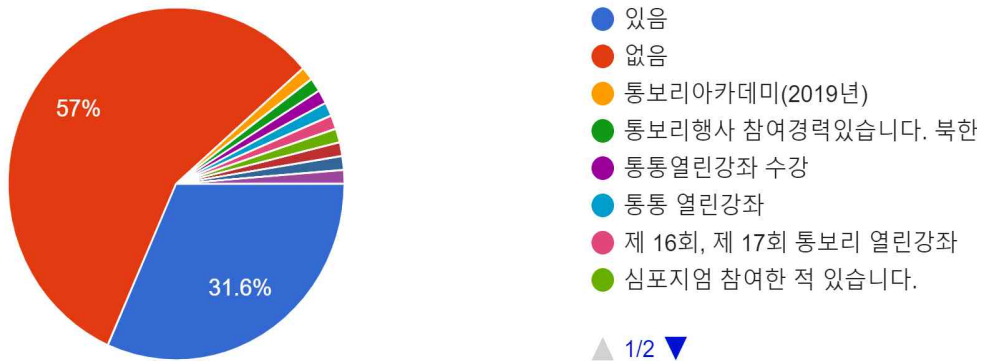
2020 통일 보건의로 리더십 아카데미 만족도평가 항목 중 ‘본 강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질문은 중복선택이 가능하며 추후 강좌 홍보에 참고하기 위해 ‘기타’ 선택지의 경우, 자세한 기입을 요청하였다.



응답자 79명 중 34명(43%)의 응답자가 홍보 메일을 통해 사전참가신청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을 주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페이스북 19명(24.1%), 지인을 통한 홍보 18명(22.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확인 14명(17.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 기관을 통한 홍보(8명, 10.1%)와 포스터(4명, 5.1%)가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스펙업 카페, 인터넷 검색, 관련 자료 검색 등이 각 1명의 수치를 보였다.

### 4) 강좌 기참여 여부

2020 통일 보건의로 리더십 아카데미 만족도평가 항목 중 ‘과거 통일의학센터의 행사에 참여하셨던 강좌/세미나/학회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총 79명의 응답자 중 45명의 응답자가 57%의 비율로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통일의학센터의 교육 강좌를 처음 접했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그 외 34명의 응답자는 기참여자로 보였다.

통일의학센터의 행사에 참여했다는 의견 중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준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통보리 아카데미, 통통 열린강좌, 심포지엄, 2회 이상의 행사 참여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 2. 2020 통보리 아카데미 정성평가

### 1) 장점: 도움되는 측면

다음의 표는 2020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의 어떤 측면이 가장 도움 되었습니까?'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82.3%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강의 내용이 인상깊었습니다.</li> <li>-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지식이 향상되었습니다.</li> <li>- 강사진들에게 사전에 질문한 내용이 질의응답으로 바로 준비되어 있어 편했습니다.</li> <li>- 북한의 통계 현황이나 의료 연구, 과학기술 등 모르던 분야에 대해 알게되어 유익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의학문헌 및 관련 학술지 정보가 참 신기했고 국제기구에서 남북한 의학분야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어 좋았네요.</li> <li>-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통일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고, 다각적인 주제에 대한 접근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li> <li>-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북한 관련 전문지식과 코로나 상황을 인해 참여하기 힘든 세미나를 온라인 학습으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li> </ul>

	<p>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의 흐름에 맞춘 강의 주제 선정 및 일반적인 강의로 접하기 힘든 주제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li> <li>- 북한의 의료 현황, 논문 및 자료들을 알게 되었고 북한 논문에서 생약 관련 추출물로 연구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관심이 생겼네요.</li> <li>- 북한학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했고 북한 관련 최신 통계 자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li> <li>- 북한의 데이터 인식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li> <li>- 질의응답 시간에 강사진이 직접 댓글 질문에 답변해준 부분과 학술지 예시 제시가 가장 좋았습니다.</li> <li>- 단순히 통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의 보건의 폭스를 맞춘 부분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껏 수강하였던 통보리 아카데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li> <li>- 평소 만나기 힘든 북한 분야의 연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집 안에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자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QnA 시간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던 점이 다른 일반적인 강의들과 차별화되는 통보리 아카데미만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li> <li>-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관한 편견을 깨고, 북맹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li> <li>- 북한을 실제 여러방면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의 통찰을 어깨너머로 듣고, 미래 남북통합 및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좌표를 스스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li> <li>- 의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통일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통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li> <li>- 저는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상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장벽에 대해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업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연구할 때 생각보다 많은 정보의 제약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부딪히는 한계가 많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감과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li> <li>-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한 강연이라 흥미로웠어요.</li> <li>- 학교 수업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북한 연구 방법론 및 자료 수집, 활용 등 실제로 연구에 필요한 주제여서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li> </ul>
--	---

## 2) 단점: 교육 개선사항

다음의 표는 2020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성평가 질문은 '본 강좌 또는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81.0%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p>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로 인한 강의 방식 변경이 아쉽습니다.</li> <li>- 페이스북 라이브보다는 줌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페이스북 라이브는 사용 경험이 별로인 것에 비해, 줌은 참여자 확인도 가능하고 편리한 듯 합니다. 유튜브도 좋습니다.</li> <li>- 비대면 좋습니다. 비대면인데도 잘 준비해주셔서(기술적인 부분, 질의 응답 등) 원활히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li> <li>- 강의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이 적어서 아쉽습니다.</li> <li>-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날이 도래했음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시, 야간 강좌면 업무 방해 없이 수강 가능할 듯 하네요.</li> <li>-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다보니, 라이브에 들어가거나 시청하는게 약간 생소했고 중도에 몇 번 창이 다운되었습니다.</li> <li>-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들의 이야기도 함께 있으면 의료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될 것 같습니다.</li> <li>-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많이 이뤄졌으면 합니다.</li> <li>- SNS 접근이 전반적으로 익숙치 않아 수강이 끊기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수강하지 못한 강의에 대해서도 꼭 답이 필요하다면 답지에 '비해당' 란도 필요할 듯 합니다.</li> <li>- 강좌의 내용은 알차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li> <li>- 대학생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지면 좋겠네요.</li> <li>- 라이브로 송출되는 아카데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깔끔하고 섬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을 최대한 배려해주시려는 그 마음이 강좌를 들으면서 너무 잘 드러나 감사하고 또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li> <li>-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불가피하게 현장강의보다 집중력이 저하되었지만 이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지 교육환경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li> <li>- 노트북 음량을 최대로 했는데도 너무 안들려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인데 '과학기술 및 ICT 분석' 세션은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주제에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박사님 강의는 유용했습니다.</li> <li>- 제16회 통보리 열린강좌부터 봐왔습니다. 영상 진행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강좌를 듣는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눈을 마주하고 대면으로 강좌로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li> <li>-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li> <li>- 워낙 쟁쟁하신 강연자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셔서 강연을 듣는 것 자체도 귀한 기회라 딱히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없었는데요. 굳이 개선할 점이려면 강연방식이 인강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 폐북</li> </ul>

	<p>라이브만의 독특한 특성(실시간 피드백이라던지)을 잘 이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짧은 생각이 들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이크 시간동안 방송된 영상의 배경음악과 진행자분의 목소리에 대비하여 송출되는 연자분의 목소리가 작은 편이어서 볼륨이 일정하게 맞춰지면 좋겠습니다.</li> <li>- 깔끔한 진행과 전문적인 강의에 만족한다.</li> <li>- 실무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li> </ul>
--	---

### 3) 논의사항

논의사항은 응답자가 1주차 3개 세션의 강의 중 2개 세션 이상에 참여했다는 증빙을 위해 강의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구성된 섹션으로, 수강자들은 해당 3개의 질문 중 2개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수료 기준을 충족한다.

#### (1) ‘세션 1’ 응답 내역

다음의 표는 2020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관식 질문 및 발췌한 일부 답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응답자 중 97.5%의 응답률을 보였다.

질문 내용	
<p>(세션 1) 북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다면, 1)우리나라의 통계청 발표, 2)국제기구 통계 데이터, 3)북한에서 발표한 수치를 나타낸 기사 중 어떤 통계를 선택하여 연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p>	
강좌명	수강자의견
<p>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2)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이라는 당사자 입장이 아닌 제3의 국가들의 공통된 자료가 가장 객관성이 높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li> <li>- 북한 자료들을 살펴볼 때 통계보고에 관한 신뢰성은 매우 갖기 어렵습니다. 일단 통계학 관련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융통성 있게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기구의 통계를 선택할 것이나,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북한의 데이터는 선전용이 많을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참조하기보다 이러한 주제 또는 이러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li> <li>- 세 가지 모두 연구과정에 이용되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할 것입니다. 우</li> </ul>

	<p>선 우리나라와 북한은 과거 6.25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어있으며 아직 까지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객관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국가정보원의 기술력과 정보력으로 통계적 수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국제기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선 좀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통계청 발표와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계는 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통계의 3대 원칙 중 당성의 원칙은 통계 수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보기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한 자료만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li> <li>- 세 가지 모두를 활용할 것입니다. 1,3)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통계와 북한이 발표한 수치는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그 한계 또한 남북관계의 현황을 반영할 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맥락의 파악과 함께 활용할 것 입니다. 2)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의 경우 어떤 국제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는지 파악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할 것입니다.</li> <li>- 1을 택하겠습니다.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도 물론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남북한의 실정을 완벽하게 잘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도 북한 내부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과 꾸준히 교류해오며 통계 자료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국제기구나 북한 자국의 통계 자료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li> <li>- 1 북한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기에는 북한통계의 조직도와 면담내용 등의 자료를 보았을 때 명확한 근거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구 동독 사례를 보았을 때도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독은 통일 이후 통계 조작으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파산하였고 한국의 통계를 사용해 북한 통계를 변환시키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혼돈을 최대한 피하고 통계통합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li> <li>- 우선 3번의 경우에는, 북한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로, 폐쇄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국위선양에 반하는 연구내용은 대외적으로 잘 알리지 않으며, 여기서 연구결과의 distortion, bias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위치해 있으나 아직까지 학자간의 교류 가 활발한 편은 아니며 심리적으로는 먼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북한 에서 발행한 자료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아까도 언급한 bias가 있는 북한의 자료에만 의존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li> <li>-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 - 우리나라와 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데이터를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3국이나 국제공인이 가능한 기구의 통계 데이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li> <li>- 3가지 방식 모두 참고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청 발표와 국제기</li> </ul>
--	---

	<p>구 통계 데이터 수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유는 발표에서 말했듯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통계 조작으로 인해 북한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우선 우리나라의 통계청 발표 통계를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3번의 경우, 북한 정치체계의 특성상 신뢰성을 담보하게 어렵고, 2번의 경우와 비교해도 1번이 휴민트의 활용 등으로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li> <li>-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북한 나라 사이즈나 경제 사이즈와 비슷한 나라의 통계를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li> <li>-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를 나타낸 기사입니다. 강의에서도 하신 말씀과 같이 북한은 닫혀진 곳이므로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의 신뢰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자체를 이해하고 변화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 2)와 비교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li> <li>- 국제기구 통계를 이용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강사님 말씀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통계도 그들의 불확실한 통계를 어느정도 반영하거나 추측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통계는 북한과 친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북한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 국제기구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북한 통계가 바탕이 되는 연구를 할 때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선택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먼저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수치는 당의 노선 및 이데올로기의 보존을 위해 왜곡되고 편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로서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은 다른 국가의 영향과 간섭에 대한 우려로 국제기구에도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데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분산적 통계 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일 것입니다.</li> <li>- 저는 1번과 2번의 데이터, 즉 우리나라의 통계청 발표와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연구진과 직접 메일 등을 통해 질문을 해볼 수 있는것도 아니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연구들 때문에 통계 결과에 주관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li> <li>- 1,2,3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계를 낸다면, 우리나라의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가 물론 무의미한 자료는 아니겠으나,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인 만큼 자의적인 해석이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가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보다 더 데이터양이 많고 신뢰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연을 듣고 난 뒤,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li> <li>- 우리나라의 통계청 발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행할 것 같다. 천리마운</li> </ul>
--	---

	<p>동의 예시처럼 계획 경제의 특성상 이미 북한의 경제자료는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며 구 동독의 사례처럼 통계부실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항상 재기되어왔다. 앞으로의 통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국가승인통계로 변환시키는 표준화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통계를 활용할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번입니다. 세션 1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있고 남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우리나라 중에 선택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통계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며 우리나라 또한 북한을 견제해야 하며 추세를 계속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더 발 빠르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아서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li> <li>- 국제기구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한계와 북한 자료의 왜곡은 북한 연구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북한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제기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3가지의 정보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 지표별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다른 경우 이를 어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li> <li>- 1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사용하겠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북한 관련 데이터와 북한이탈주민들을 가장 많이 마주할 수 있고, 한민족의 정신이 강한 한국인에게는 민족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li> <li>- 세 가지 통계 모두 연구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처에 따라 신뢰도나 정확도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가 구성된 방식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다르고, 그를 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이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서로 배타적인 성격의 것이 아닌 이상 서로를 보완해가며 참고해볼 수 있는 좋은 소스들이 될 것입니다.</li> <li>-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 같은 경우 조사관이 조사에 관여하여 비교적 믿을만하다고 설명해 주셨기에, 다른 자료에 비해 신뢰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li> <li>- 제가 연구를 한다면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강사분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북한의 자료는 은폐되고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만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인받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북한의 발표 자료는 어떤 상황적 이유로 작성되었고 그걸 평가하려면 최소 평가자의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기본 자료가 확보 되어야</li> </ul>
--	--



	<p>가능한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자료를 평가절하 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을 평가절하 할 때 어떤 기준과 자료를 통해 하려면 일단은 북한의 발표수치를 보며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배경적 이해가 있음 더 좋을듯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적의 문제로 실제 방문이 어려운 남한으로서는 남한의 통계를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판별하는 국제통계는 실제 활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자료는 신빙성이 낮더라도 통계 범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별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li> <li>- 북한 통계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여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북한이 발표한 수치를 먼저 확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계 수치의 경우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큼니다. 그러므로 정확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통계청의 발표, 국제기구에 의해 조사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 통계 수치를 얻어 연구를 하는 것이 정확도에 그나마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 곳의 통계치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접한 결론인 황폐화가 지속된다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와 통계치를 비교 분석했을 때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치를 두고 다른 통계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li> <li>- 우리나라의 통계청과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의 통계 수치의 경우 사회주의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li> <li>- "우리나라의 통계청 발표(1)를 선택하여 연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통계는 간헐적으로 발표되어 주기적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북한은 집중형 통계제도로 '중앙통계국'이 통계를 당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조작되어 공표되며 통계자료로써 신뢰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세 번째, 국제 통계 표준과 북한의 통계 표준이 다르기에 직접 북한 통계치를 읽고 해석하여 의미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는 국내 대북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북한 통계를 해석하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통계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북한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북한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 통보리 강연에서 강조해주셨던 것처럼, 북한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어 원조, 지원의 개념이 아닌, 학술대회, 공동연구로써 접근하여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li> <li>- 북한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한다면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를 모두 종합하여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WFP/FAO/UNICEF 등 의 국제기구에</li> </ul>
--	---

	<p>서 내는 통계들은 원조기관이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원조를 더 강조해야 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상황을 조금 더 과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허용한 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같은 중국해관총서의 북중 무역자료를 빌린 거울통계가 대부분입니다. 북중 무역수치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 또 성격상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내는 통계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의 특성, 선전성, 왜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종류의 통계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통계를 종합하여 북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국제기구 통계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IAEA에서 북한 핵 현황과 같은 데이터를 공지하여 활용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제 신뢰 기구가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면 데이터 신뢰성이 증가될 것입니다.</li> <li>- 통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통해 통합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한 객관적 지표와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통계자료 및 북한에서 발표한 수치들의 동향을 비교하고 같은 질문의 내용들이 어느정도 일치되는지를 보고 그 통계의 유의미함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들은 출처와 연구기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조작의 의심도 가능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2)국제기구 통계 데이터와 3)북한에서의 발표 수치 두가지 통계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의 대부분은 국제기구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확충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중복성 문제. 신뢰성 문제가 늘 제기되는 북한의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나 그들이 왜곡하고자 하는 정보, 의도에 따라서 북한이 처한 현실을 사회공학적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의 이스터에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li> <li>- 현재 북한에서 공개되는 통계의 경우 자국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다수 존재하며, 중앙통계국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집중형 통계 제도를 유지하며, 중앙통계국이 통계 관련 전 과정을 책임지고, 당에 의해 사전 결정되거나 조작되어 공표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통계의 경우 여러 기관이 각기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로써 통계청은 직접적으로 총 조사와 일부 조사를 수행하며, 통계법에 따라 통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한다. 향후 이러한 남북한의 통계 차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 전 준비단계에서 통계통합을 이용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통일 후 통계통합 단계에서는 북한의 집중형 체계를 신속히 분산형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북한 연구에 있어, 북한의 통계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신뢰도에 있어서의 의문점은 존재하지만 실제 북한에서 공개되는 통계를 바탕으로</li> </ul>
--	--

	로 국내의 통계적 기술과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들을 참고하여 그 신뢰도를 측정하여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2) ‘세션 2’ 응답 내역

다음의 표는 2020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관식 질문 및 발췌한 일부 답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응답자 중 78.5%의 응답률을 보였다.

질문 내용	
(세션 2) 북한의 여러 분야의 문헌 또는 의학문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이를 활용한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가요?	
강좌명	수강자의견
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전공 중인 학생으로서 주로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 서울도서관 등에서 문헌자료 조사를 하여왔는데 의학문헌들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금번에 의학문헌들을 접하면서 전공자로서 새로운 빛을 마주하는 기분일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li> <li>- 생약추출물에 대해 더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생약이라는 주제는 현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할 주제가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만 특히 더 자라는 식물이 있을 수 있으며, 본초학적인 부분이나 한방적 지식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li> <li>- 강의 속 하신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 중 각 학과별 출간된 학술논문의 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정형외과에 관한 의학문헌을 통해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골절 및 염증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실제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과정 속에서 여러 부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정형외과 의학문헌은 발전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곧 근육통, 골절상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단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li> <li>- 북한의 치과 학술지, 예방의학회지, 내과 학술지 등 다양한 의학 문헌을 통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와 발생하는 질환들의 분포와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와 통계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다양한 의학 및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li> <li>- 현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자 감염병 관련 북한 학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말단 연구보조원입니다^^). 하신 박사님의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어서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li> <li>- 북한의 의학이 향하는 방향성을 알고 연구 시 선호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과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경우 논문의 수가 적음을 통해 북한 의료 기술의 발전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강연 중 연자분께서 갑상선암에 대한 정보가</li> </ul>

	<p>없는 것으로 보아, 진단 환경이 잘 구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북한과 우리의 증례를 비교하여 수술법의 차이가 있는지,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어떤 논거를 통해 판단을 내렸는지를 비교해보고 싶고, 북한에서 갑상선암 연구가 잘 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와, 국내에서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데 비해 북한에서는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보고 싶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별 논문 분포수, 공동 연구 수행현황, 치료 인프라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내과의 경우에도 어떤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치와 세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아미나진 사용 중에 생긴 악성증후군 사례에 대한 연구내용이었는데 논문에 소개된 내용 외에 비슷한 사례들을 모은 메타분석, systemic review의 문헌이 어떤 게 있는지 더 알고 싶었으며 이에 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응답 때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도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된 데이터의 한계와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하루빨리 제한이 줄어들어 연구가 더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li> <li>- 북한 주민들의 치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 정보들을 지역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려운 지역에 대해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li> <li>- 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이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병과 북한의 정책을 비교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추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li> <li>- 의학문헌은 고려의학 문헌과 의사가 고려의학 사용을 통해 경험하게 된 내용과 현대 의학과 접목이 된 내용들이 실린 문헌을 기대합니다. 적정의료 차원에서의 통합의학 방향을 유추해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우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다 발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기술이 많지 않거나 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나 그 상황으로 생겨난 예방의학적 모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li> <li>- 영양학 전공입니다. 계급별 지역별로 영양섭취 빈부 격차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는데 건강(정신건강) 또는 질병과 영양과의 연구 진행 여부, 영양에 대한 인식도가 궁금합니다. 또는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슷한 목적의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li> <li>-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헌 정보로는 권력 유지 및 이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잘 하는 것은 권력의 유지와 이양의 방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적을 수청할 수 있고 관료들을 감시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문헌과 정보를 통해서 권력 유지 방안과 발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절히 연구한다면, 독재의 등장에 대한 시스템적 방어 방향과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의학문헌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문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북한 사람들의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결핵 발생률 등의 건강수준 및 의료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탈북의사 선생님들과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격차를 좁히는 데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li> <li>- 다루어진 연구 분야와 질환들의 분포와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통일 대비 의학 및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확보에 기여될 수 있다. 내가 보고 싶은 분야는 내과 분야 중에서도 면역계 질환과 관련해 북한에서의 면역계 질환의 분포 비율과 어떤 주제를 특정으로 의학문헌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li> <li>- 북한의 문헌이나 의학문헌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외과'라는 학술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 통일 학회에서 봤습니다. 저는 응급구조사이자 응급 의료연구실 연구원이라 아무래도 응급의료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논문을 볼 수 있다면 통일 응급의료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li> <li>- 북한에서의 여러 문헌과 의학 문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발표한 모든 자료들은 김정일에게 유리한 측면만 발표하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로는 연구를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의 성병에 관해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해외 매체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HIV 바이러스 감염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가능하다면 감염 관련 의료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요즘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에 대한 감염 정도도 파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li> <li>- 북한에서 출판하고 발간하는 여러 분야의 문헌 중 특히 의학문헌들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주로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북한은 닫혀있는 나라이기에 외부로 공개되는 문헌에 한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중이며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li> <li>- 강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lt;외과&gt; 등 북한의 의학 문헌들을 통해서 밖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북한의 의료 현황들을 2차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선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아예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요인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분석이 진행된 분과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과 아직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분과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들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li> <li>- 북한의 의학 학술지인 외과로부터 북한의 의학 수준과 북한의 의료 인프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로 활용한다면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의 의료 기기들을 북한에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하면 병목현상을 줄이며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에</li> </ul>
--	---

	<p>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내 공공의료에서 고려의학 및 고려의사 활용 정도, 북한 내 자생 천연물의약품 소재들. 연구를 한다면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고려의학의 분야(ex 외과, 응급 등)이나 새로운 천연물 경험을 연구하고 싶습니다.</li> <li>- 남한의 한의학은 전통의학과 더불어 중국 의학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연구해오고 있는 고려의학을 이용한다면 좋은 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고려의학은 생화학의 충분한 도움이 없을 경우를 예상하여 추진되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생하여 나오는 산물로 생약을 만들고 특별한 자연환경에서 얻거나 재배되는 천연약물로 남한도 도움을 얻고 지난번 송이버섯 답례품과 같은 천연산물의 이송 등은 한반도 약재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li> <li>- 북한의 문헌 또는 원전을 확인하고 해석함으로써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 북한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북한의 가장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정보들, 그 외의 가지들인 정보들은 관계가 깊습니다. 북한의 사상과 체제가 그렇듯 주체사상, 당, 최고지도자 등 여러 분야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북한의 문헌과 원전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존했을 때 완전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연구자의 견해에 의해 객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접경지역, 보건의료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문헌을 통한 연구는 보다 근거가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 북한 주민들이 겪는 대표적인 질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요소들이 이러한 질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해보고 싶습니다. 예방의학, 영영학, 사회복지, 주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통일 후 중점적으로 개선시켜야할 북한의 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li> <li>- 북한의 의학문헌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 3가지는 1. 북한의료 및 질환의 트렌드 (ex,복강경 수술, 고려의학 임상활용 사례, 세균성 질환) 2. 특정 의료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인물 3. 북한과 연구, 협력하는 세계 국가들입니다. 북한 주체의학은 고려의학과 예방의학의 발전을 일으켰다고 배웠습니다. 강연을 통해 북한의 고려의학 임상연구 문헌들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의학의 임상 사례와 그 효과를 한국의 한의학과 비교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개발하는 천연물 의약품의 종류와 그 효능을 탐구하여 유사한 질환에 사용되는 양의학 임상약과 비교연구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북한 의료를 우리나라가 아닌, 비슷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한다면 의료비용대비 국민 건강수준은 훌륭할 수 있다는 강연자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외부로부터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전시켜온 북한 의료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의학 학술지를 통해 북한 의료계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세션인데, 북한에서 외과 계열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북한 의료계 정보를 이용해, 북한이 신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li> <li>- 북한 치과 학술지, 북한 예방의학회지, 북한 내과, 외과 학술지 등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니 선견 등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외국 혹은 국내가 훨씬 뛰어날 것이기에 북한의 의학 문헌을 단순히 의학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보다는 질환들의 분포와 추세를 분석하여 추후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의료를 도입해야 하고 그 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 연구할 때 활용을 하는 좋은 지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li> <li>- 학술지명에 따라 관련 주제 논문뿐만 아니라 의학의 전반적인 지식 이론 관련해 포괄적인 저널을 게재되고 있다. 의학과 관련해 간호 관련 학술지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 및 간호 교육의 수준, 남한의 간호와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해보고 싶다.</li> <li>-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예방의학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학』, 『예방의학』, 『기초의학』, 『조선약학』 등의 의학문헌들을 통해서 천연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무상이나 저비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북한의 문헌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일부에 국한 된 것과 가공된 것이 존재합니다. 북한에는 아직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항생제나 많은 의약품에 노출된 횟수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해서 노출이 적거나 아예 없던 북한 사람들에서 동일한 치료나 약물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비교군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li> <li>- 북한 의학 학술지가 10종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학술논문이라고 하기 힘든 수준의 학술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내과, 외과 논문이 몇 건 실렸다고 해서 그게 관심도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것은 비단 북한 의학 학술지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및 북한 문헌 분석 한계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문헌, 특히 현재 나와 있는 10종의 의학문헌을 연구 목적 및 배경, 필요성 등 당위성 논리적 뒷받침으로 활용은 하더라도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li> <li>- 북한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헌을 통한 지식의 배포와 소통과정 그리고 문헌에 담긴 여러 지식들입니다. 이는 북한의 해당 분야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좋은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문헌의 경우 문헌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와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활용하여 북한의 치과 학술지와 치의학 문헌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따른 치과계 핵심 키워드와 주제어를 분석하고, 북한의 치과계 연구분포를 파악하여 통일을 대</li> </ul>
--	--

	<p>비한 치과 보건의료 의학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지는 객관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과 외과 학술지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 즉 어떠한 질병이 유행하고 많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과학 분야의 발전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통일이 된다면 어느 질병에 대하여 대비해야 하는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li> </ul>
--	---

(3) ‘세션 3’ 응답 내역

다음의 표는 2020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주관식 질문 및 발췌한 일부 답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응답자 중 88.6%의 응답률을 보였다.

<b>질문 내용</b>	
<p>(세션 3) 강의 내용 중, 북한과 타 국가 간 연구 또는 사업 분야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협업을 했을 때 어떤 아이টে를 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식의 협업을 해보고 싶으신지 자유로운 생각을 들려주세요.</p>	
<b>강좌명</b>	<b>수강자의견</b>
<p>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경제협력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하고 싶어도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사업을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경기도 사례만 보아도 지자체가 평화번영 실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시민과 공감하며 추진할 때 안정성과 효과성을 얻을 수 있기에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남북 교류 협력이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보다는 경제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거버넌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자연과학의 수준에서의 협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통신 등의 문제는 북한에서 꺼려하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안보에 영향이 적은 순수과학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장비기술 협력과 백신 연구 또한 양측에 큰 효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li> <li>- 정치 경제 분야보다 문화 분야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연구자들과 상호 문화에 관한 비교연구 등이 흥미롭습니다.</li> <li>- 저는 우리나라와 북한 국민들의 유전 정보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싶단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 인종마다 조금씩 다른 유전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히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과 북한이 협력하여 한 민족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유전 질환이 있는지 이를 해결</li> </ul>



	<p>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 지 함께 모색하고 방법을 구축해나감으로써 또 하나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을 꼽자면, 지리적인 환경이 거의 같다 싶을 정도로 서로 가깝고,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협업 시에 문화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고통 받고있는 질병에 대하여 협업을 하자고 제안할 것 같습니다.</li> <li>- 북한과 남한이 핵심적인 행위자로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북한의 질병 부담에 대한 중재와 남북 교류 시 발생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북한 또한 김책공대 등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 세션에서 북한의 의학논문 발행 건수를 보았을 때, 외과학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머신러닝을 통해 암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IBM 사의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을 공동개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IBM 사의 왓슨은 서양인의 암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는 만 큼, 아무래도 동양인의 암 진단에 있어서는 외적타당도가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기술력과, 의학진단 기술, 북한의 데이터가 함께 모아진다면, 한국인에 한해 내적타당도가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북한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식품 산업 쪽으로 해보고 싶다. 한민족이지만 분단된 채로 지내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문화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음식이 변화했을 것이다. 이런 음식 문화를 남북한 서로 전파하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li> <li>- 북한과 우리나라가 협업을 맺었을 때 양국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국 모두 ICT 관련된 4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통일 이후 활용 가능한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접경지역 관광상품 같은 아이템을 사용하면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li> <li>-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천연물 개발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천연물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여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런 천연물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어떠한 물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향후 신소재 개발 분야에도 활용 해보고 싶습니다.</li> <li>- 북한과 협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볼 수 있는 게 고려의학과 한의학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증거기반 의학으로서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RCT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증거가 많을듯한데 요.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practice-based research network 즉 PBRN으로 임상현장의 질문을 임상현장에서 자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남북의 보건의료도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현장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질환별 치료기술별 PBRN을 남북 공통으로 만들어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접근해보는게 어떨지 싶습니다.</li> <li>- 시스템적인 질문과 다소 동떨어진 답일 수 있으나, 한의학/고려의학에</li> </ul>
--	--

	<p>대한 신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생약 재료와 기술 공유를 통한 대체 의학 협업 가능성, 과거 국제보건 수업에서 탈북 의사이면서 면허 문제로 현재 병원 간병인하면서 면허시험 준비하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 있습니다. 가장 탐나는 한국 의료장비는 portable device라는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적용했을 때의 질적 변화 등이 궁금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우리나라가 협업했을 때, 천연자원이나 관광 아이টে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협업 아이টে이라는 가치를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를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 아이টে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li> <li>- 군사 무기, 인공 위성 등을 북한 자체의 기술력으로 개발 및 생산해낸 것으로 볼 때, 우주 항공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li> <li>- 북한과 연구 또는 사업 분야의 협업을 할 경우, 북한이 가진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력과 합쳐진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요즘, 기술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마다 생명과학 연구와 관련된 윤리 기준/법령이 다른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을 북한의 연구팀과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li> <li>- 북한과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선진화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료의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다양한 임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 통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통신 ODA 기술을 본보기로 북한과도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li> <li>- 관심 있는 연구로는 남북한의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문헌을 통해서만 연구 동향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남북한에서 관심 있는 주제로 협업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li> <li>- 영양 상태에 따른 역학연구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영양부족 국가인 북한과 영양과잉 국가인 남한의 유사성을 토대로 영양섭취로 인한 만성질환이나 질환들을 연구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li> <li>- 우리나라와 북한이 협업을 함에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감염병 관리 및 바이오 분야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관련 지원은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는 부분일 것이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원의 형식이 아닌 연구 및 교류협력 등의 명분을 통해 천천히라도 아래에서부터 협업의 단계를 쌓아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안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성의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 동의를</li> </ul>
--	--

	<p>얻어가는 과정들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외에 소아 감염병 등에 대한 연구 협력 또한 눈여겨보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먼저 공동의 합의된 목표를 구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이건 남과 북이 우선 시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맞춰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li> <li>- 앞서도 답했듯이 고려의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가 매우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특정 의학교육을 진행하였을 때 학습 효과가 어떤지 확인하는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li> <li>-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들을 융합하여 '재료'에 포커스를 맞추는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며 분석하면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li> <li>- 비무장지대에 걸쳐진 남북의 동일 경도권에서의 질병(전염병과 만성병)에 관한 코호트 연구 통해서 분단 이후의 단절 또는 부족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마련하여, 향후 통일 또는 변형된 연방 타입의 교류에 있어서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임상에도 많은 기회가 필요또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향민 2세대인 저의 경우에는 더욱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li> <li>- 두가지 생각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나, 만나지 않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은 지금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게임산업입니다. 아울러 이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어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도 좋은 협력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오래전부터 관심가지고 있는 대체에너지 분야입니다. 한국의 남아도는 축산분뇨폐기물을 활용하여 비료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화학비료공장 만들 거론하고 있는데, 남한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북한의 에너지와 비료문제를 해결하여 북한의 식량문제와 석탄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li> <li>-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간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선행 연구를 하여 통일 후 언어 차이로 인한 남북 간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지금은 북한 여건을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필수 의약품 성격의 유용하고 비용 효과적인 생약개발 내지는 북한의 환경과 제반 여건에 맞는 일차 건강관리용품 개발 등이 가능할 듯 합니다.</li> <li>- 저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협업을 했을 때 물론 보건의료분야도 필요하지</li> </ul>
--	--

	<p>만 측정 시험 등 정밀기기제조업, 특수기계 제조업 분야에서도 공동연구 또는 협업을 진행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의에서 언급되었듯이, 앞서 말씀드린 북한에서 정밀기기제조업, 특수기계제조업 분야에 관련된 특허가 많이 출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을 한다면, 남북합작기업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여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남북 사람들간의 정도 쌓아가는 형식으로 교류하고 싶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O/WFP 공동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보건상태는 극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내년 북한의 식량 안보 및 영양/보건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국영/협동농장 특성상 국가에서 하달한 농산물을 재배해야만 하는데, 종종 기후와 지질에 어울리지 않는 하달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달된 작물과 지역의 지질과 기후가 맞지 않아도 특정 작물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협업을 한다면 북한의 각 지역에 어울리는 작물을 최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지질조사 및 친환경 농업 연구 협력 사업을 진행해보았으면 합니다.</li> <li>- 북한과 표준 용어집을 기획하는 등, 양국간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교류 협력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학자간 기초 용어 통일화 혹은 비교용어사전 작업등을 진행하고 싶습니다.</li> <li>-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 의학적 연구에서 가장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의료실정이 좋지 않고(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진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학적 치료시설이나 진단키트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한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질병과 질환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는 의학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농기계 분야!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작년, 여러 공학 분야에서 북한 공학자들과의 협업을 추구하거나 교류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나 냉해 때문에 농업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분야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엄연히 남한과 북한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보안 문제로 인한 제약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협업은 어렵다 생각하구요. 인도적인 차원 특히 의료, 보건 분야에서의 관련 사업이라면 제한적으로나마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식량문제가 화두로 자주 떠오르는 국가인 만큼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도 떠오르구요. 의외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북한이 원격의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때 오히려 국가에서 ICT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플랫폼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COVID-19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폐쇄성이 이를 촉진시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원격의료라면 직접적인 물자를 제공하는것 보다 사회적, 여론의 이견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스마트농업 기술협업과 잘 접목되면 고질적인 영양실조 문제 해소와 함께 인도적 차원으로도 윈윈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li> </ul>
--	--

	<p>프트파워를 활용한 협업이 키포인트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 북한 또한 국경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의 언급도 있었던 듯이 향후 방역에 있어 한민족공동체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백신 혹은 치료제 개발에 남한이 앞서 나간다면, 이를 북한과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될 전염병 질환에 대한 대응 방역 시스템과 전염병 치료 약물의 공동 개발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남한에 비해 낙후된 북한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의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li> <li>- 북한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천연물화학에 관한 연구에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도 천연물화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물이 풍부한 북한의 자원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연구진이 천연물화학에 관한 연구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의약한 분야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발전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li> <li>- 북한에서 외과 계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 추후 원조를 통해 북한을 도와줄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외과계 기기들을 이용해 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사들의 교육방식도 궁금한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교육방식과 비교해 어느 점이 다른지 비교한 뒤에 의료계에서 협업할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li> <li>- 북한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초 학문 연구부터 공동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예민한 주제가 다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의학 분야에서 예를들면 한의학과 고려의학에 대한 역사적 발전 상황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li> <li>- 북한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게놈 정보를 분석하여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인공지능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딥 빌리프 네트워크(Deep Belief Network, DBN) 등의 AI 기술을 문자인식, 음성인식, 공정효율화, 게임 등 여러 방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국과 협업을 한다면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주 아이템으로 협업을 해나가며 의학과 관련된 세부주제를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li>- 북한과 우리나라가 협업을 하는 경우 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두 나라의 인구들간 면역체계의 차이점을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인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분단이 생겼고 그로 인한 신체의 변화 등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마주보고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나라 사람들 신체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작용했을 텐데 그러한 변화들을 찾아내고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 특정 면역체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는 70년이란 세월</li> </ul>
--	---

	<p>이 지났을 때 식습관, 기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고 싶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북한에는 발굴되지 못한 유적이거나 개발되지 못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만약 남북이 협력해 개발을 추진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고고학, 역사와 관련된 분야는 물론이고 토목, 건설 등의 활기로 경제의 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을 잇는 역사 문화탐방을 테마로 한 관광코스를 만든다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관광자원에 개발에 있어 북한과 협업하고 싶습니다.</li> <li>-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여러 법적 이유로 실현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예상되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들이 흥미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를 통한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li> </ul>
--	--

### 3. 2020 통보리 아카데미 추후 강의 주제

다음의 표는 2020 아카데미 후 발송된 만족도평가 링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질문은 ‘추후 수강을 원하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70.9%의 응답률을 보였다.

강좌명	수강자의견
<b>2020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대비 남북한 의학 분야 상호협력의 단계적 방안이 궁금합니다.</li> <li>- 북한의 외과 수술과 모성 보건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li> <li>- 청소년 자살률 측면에서 남북한 비교 사례가 있을까요?</li> <li>- 통일과 간호 및 한의학(중의학)의 준비 등의 내용이 궁금해요.</li> <li>- UN 안보리 제재 관련 현황 등 국제기구의 대응 현황은 어떤가요?</li> <li>- 세분화된 북한의 산업 분야 또는 IT 산업을 대비하고 있는지 혹은 ICT 기술을 활용한 북한 개발 원조 관련한 내용이 궁금합니다.</li> <li>- 북한이탈주민 중 한국에서 의료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남북한 의료체계 비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li> <li>- 북한의 의료 수준을, 비슷한 소득의 국가와 비교한 강의를 듣고 싶어요.</li> <li>- 북한만의 독특한 특징인 고려의학 및 고려의사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신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li> <li>-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 중 이미 알려진 내용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종합한 강의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학 부분뿐만 아니라 약학, 간호학, 한(고려)의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뤄주시길 바랍니다.</li> <li>- 통일보다는 북한의 내부 사정 및 북한의 문헌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동안 풀로 집중할 수 있었어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래를 이어나갈 젊은 세대가 지금처럼 대치 국면이 아닌 통일의 파트너로서 일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li> <li>- 폴란드 및 주변국으로 이송되었던 한국전쟁의 북한전쟁고아에 관련된 얘기가 다루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북한의 고아들 중에는 남한포로들에 의해 발생한 고아도 있어서, 남북한이산가족찾기에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들의 DNA를 확보하고 남한의 자료와 대조하여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화나 방송에서 상영되기도한 내용이나 남북교류에서 필수적인 내용이라 보고 향후 모든 분들이 사망하기 전에 하루빨리 시도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li> <li>-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대한민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li> <li>-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었는데 이로 인해 북한에 미치는 여향에 대해 궁금합니다.</li> <li>- 전문가 분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의약학 분야 중 특히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나요? 북한에서 신약개발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만약 북한에서 한약이나 합성의약품 등에 대해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li> <li>- 북한학 방법론에 대한 보다 심화적이고 실질적인 강의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과 학문들의 방법론들과 비교하는 관점에서도 좋고, (세션 2와 비슷하지만) 의학 분야 학술지 외에 다른 북한 문헌에 대한 분석 방법 강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li> <li>- 다른 주제의 선배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방법론, 또 듣고 싶어요! 통보리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아닐까 싶을 만큼 정말정말 좋았습니다!</li> </ul>
--	--

### Ⅲ. 통일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

#### 1. 사업 성과

##### 1) 사업 전반의 성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2012년 개소 이후,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통일 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열린강좌와 아카데미를 매년 꾸준히 진행해왔다.

열린강좌의 경우, 통일의료 지식의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으로써 일반 대중, 예비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및 통일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카데미의 경우, 단순히 강의를 제공하던 기존의 타 기관들에서 이뤄졌던 일반적인 교육 강좌 방식에서 벗어나, 수강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라이브 방송 이후 만족도평가를 통해 실제 수강자들의 생각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위 두 교육 사업을 통해 통일의학센터 페이스북 및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업로드함에 따라 관심이 없던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통일의료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관련 분야 강의를 부재했던 현실 속에서 무료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남북한 및 통일의료 분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진 부족 상황에서 강사진 및 신진연구자 DB 구축에 큰 역할을 해왔다. 통일의학센터의 교육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범분야적 주제 선정으로 예비 보건의료인과 연구자, 실무자가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통일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정책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여 보다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 강좌로 진행하여 통일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2월에는 단행본 『통일의료 HRD - 통일의학센터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교육 사업 전반을 정리함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

##### 2) 관련 분야 기여도

###### (1) 통일 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강좌



정치적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써 통일 보건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 보건의료 및 경제와의 연관성 파악, 평양의학대학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의 북한 방송 및 건축 분야 논점 등을 주제로 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통일의료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회적인 기여를 하였다.

## (2) 통일 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의 중심이 될 차세대 예비 보건의료인 및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민간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의료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과 진로 탐색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일반 대중에의 공론화 여지를 남기는 강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유튜브 공간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통일의료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였다.

## 2. 사업 평가

### 1) 사업 전반의 평가

#### (1) 사업의 적절성

일반 대중, 예비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전문가 및 의료 분야를 벗어난 타 분야의 연구자까지 포용하여 대상별 맞춤 전략 구상을 통해 강의 전달 방식과 콘텐츠를 차별화하였다.

#### (2) 사업의 효율성

통일의료 분야에서 크게 시도되지 않았던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론을 대입한 강좌 기획 등의 노력을 통해 교육생의 통일의료 분야에 대한 객관적 시각 확보와 경험적 지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3) 사업의 영향력

교육 주제 선정에 있어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통일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관식 문항을 통해 좀 더 깊이 관련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어 전사회적 관심을 도모하였다.

#### (4) 사업의 발전가능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기획함에 따라 일반 대중부터 전문가 집단까지 통일 보건의료 이슈에 접근 가능한 루트를 만들어 통일의료 융복합 인재 육성과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도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련 분야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사업 한계 및 보완점

강의 주제 기획과 강사 섭외에 있어 통일 보건의료 분야 시니어 전문가에 비해 주니어 전문가 및 신진 연구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주제에 대한 강의 기획에 난항을 겪은 바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강사 섭외 및 발굴, 강좌 기획과 논문 DB 구축에 앞으로 더욱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예산상 한계로 인해 최초 계획안의 강좌 및 세미나를 더욱 자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본 사업이 단순 단발성에 그치는 교육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 3) 향후 계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는 국내 대학 중 통일의료 교육 사업을 선두에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여린강좌 및 아카데미를 시의성 있는 주제 기획과 함께 다년간의 노하우를 살려 해당 분야 교육을 활성화 할 구체적인 계획을 지니고 있다. COVID-19 상황에 빠르게 발맞추어 온라인 교육을 이어감으로써 앞으로도 무료로 대중에게 통일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대학원 등과 협력하여 통일 보건의료 강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융복합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자 한다.